

# “단순 일탈 아닌 범죄”... 청소년 도박 경고등

# 전남의 한 중학생 A군은 불법 온라인 도박인 바카라를 통해 돈을 버는 친구와 형들을 보고 별다른 경계 없이 도박을 시작했다. A군은 도박으로 번 돈을 불량비나 의류 구입 등에 사용하며 친구들과 사이에서 ‘바카라 신’으로 불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빛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결국 주변에 돈을 빌리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어머니는 휴대전화에서 도박 흔적을 확인했고, A군과 함께 광주전남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를 찾았다.

광주·전남을 포함한 호남권 청소년들의 도박 노출 수준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박을 목격하거나 접한 경험이 실제 참여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2025 실태조사...호남, 전국 최고·첫 경험 12.4세 스마트폰 등 무방비 노출...“가정·학교 대응 시급”

26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2025년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호남권 청소년의 31.6%가 친구의 도박 행위를 보거나 들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전국 평균(27.3%)보다 4.3%p 높은 수치로, 5개 권역 중 가장 높다. 전년보다도 1.6%p 증가했다. 단순 노출을 넘어 실제 도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큰 것으로 분석됐다. 또 집단 영향력이 큰 청소년 특성상 친구의 행동이 모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도박 홍보물 접촉 경험률은 51.8%로 절반을 넘었다. 주요 경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36.6%), 인터넷 배너·팝업 광고(32.6%), SNS 게시물(16.9%) 등 대부분 온라인이었다. 스마트폰이 사실상 도박 접근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 도박 경험 비율은 4.1%로, 강원·제주권(5.2%), 수도권(4.2%)에 이어 높은 수준을 보였다. 경험 유형은 온라인 미니게임(37.6%)이 가장 많았고, 복권(28.1%), 온라인 카지노 게임(21.9%) 순이었다. 도박을 시작한 이유는 ‘재미있을 것 같아서’가 67.9%로 가장 많았으며, ‘친구와 함께 놀기 위해서’(39.3%), ‘친구나

선호배의 추천’(18.5%)이 뒤를 이었다. 가벼운 호기심과 또래 관계 속에서 시작된 도박이 점차 일상화되는 구조다. 도박에 대한 인식도 문제로 지적된다. ‘돈이나 물건을 걸고 하는 내기는 도박이 아니다’라는 응답이 20.8%로 나타났고, ‘소액 도박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인식도 적지 않았다. 도박을 단순한 놀이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여전히 강한 셈이다. 도박을 처음 경험한 평균 연령은 12.4세로,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부터 노출이 시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청소년은 최근 6개월 사이에도 도박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6개월간 월평균 도박 금액은 5만 2122원으로 집계됐다. 구간별로는 5만원 미만인 54.7%로 가장 많았고, 50만~100만원 미만 26.4%, 10만~50만원 미만

18.9% 순이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도박이 더 이상 개인의 일탈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김영관광주전남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팀장은 “청소년 시기는 친구와 주변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며 “부모가 자녀의 놀이 문화와 온라인 활동을 세심히 살피고, 학교와 교육 현장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소년 도박은 명백한 불법 행위로 개인뿐 아니라 가족까지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조기 발견과 개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 초등학교 4~6학년과 중·고등학교 1만3481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 1일부터 11월 7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송태영 기자 sty1235@

### 오늘의 날씨

맑음	06:27	달림	12:45
맑음	18:50	달림	02:58



광주	☀️	8~21
목포	☀️	7~16
여수	☀️	11~21
순천	☀️	8~22
구례	☀️	5~23
광주	☀️	4~20
신도	☀️	7~21
목신도	☀️	7~15
진남	☀️	6~22
진도	☀️	5~17

목포	미물(고)	09:06 / 21:12
	샘물(저)	01:04 / 15:06
여수	미물(고)	04:28 / 17:10
	샘물(저)	11:31 / 23:04

## 서영대, ‘글로벌 캠퍼스’ 위상 강화

### 올해 1학기 외국인 유학생 1682명 유치 전용시설 확충...취업·지역 정착 지원도

서영대학교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며 글로벌 캠퍼스로서의 입지를 높여가고 있다.

서영대는 26일 2026학년도 1학기 학위과정 외국인 신입생 799명을 포함해 총 1682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재학 중이라고 밝혔다.

국적은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중국 등 14개국에 이르며, 학위과정 1483명과 어학연수과정 199명으로 구성돼 있다.

대학은 2024년 국제교육원 개소 이후 외국인 유학생 유치뿐 아니라 교육과 취업, 지역 정주로 이어지는 인력 양성 체계 구축에 집중해 왔다. 이를 위해 해외 교육기관과의 협약 체결, 입학설명회, 현지 및 온라인 면접 등을 통해 우수 인재 선발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광주시의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과 연계해 AI미래자동차와 외국인 유학생 정원을 120명까지 확대하며 지역 산업 수요에 맞춘 선발 기반도 마련했다.

서영대는 제조업 등 지역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숙련 인력 양성을 위해 실무 중심의 취업특화형 전문학사 과정을 운영 중이다.

더불어 HD현대삼호 협력사를 비롯해 한국알프스, 디케이, DH그룹, 대한조선 협력사, 광주상공회의소 등과 협력망을 구축해 유학생들의 취업과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유학생들의 안정적인 적응을 위한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한국어 능력과 사회 이해를 높이기 위해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부터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대학 연계과정 지역 학습관으로 지정받아 체계적인 교육 환경을 마련했다.

유학생들은 학과 교육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통해 2학년 1학기까지 3단계를 이수하며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수준의 언어 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지원 받는다.

또 공항 픽업, 체류 지원, 한국문화 체험 등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초기 정착을 돕고 있다. 매년 열리는 외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은 K-POP 공연과 문화 행사 등을 통해 유학생 간 교류를 확대하는 대표 행사로 자리 잡았다.

이와 함께 국제별 상담과 생활 지원을 위해 외국인 교직원 13명을 배치하고, 글로벌하우스와 글로벌라운지 등 전용 시설을 확충하는 등 생활 환경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주승완 국제교육원장은 “유학생 유치부터 교육, 취업, 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산업에 필요한 글로벌 인재 양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서범마루시니어센터 동아리 버스킹 공연 26일 광주 서구 중앙생활체육공원 공연장에서 열린 ‘서범마루시니어센터 동아리 버스킹’을 찾은 주민들이 한국무용, 통기타 동아리 등 노년사회화교육 동아리 6팀의 버스킹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

## 검찰, ‘해든이 사건’ 친모에 무기징역 구형

### 아동학대 살해 혐의...법원 앞 170여개 ‘근조 화한’

전남 여수에서 생후 4개월 된 영아를 숨지게 한 ‘해든이(가명) 사건’의 친모에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용규)는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친모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여수 자택에서 태어난 지 4개월 된 아들을 폭행하고, 욕조에 샤워기 물을 틀어놓 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주거지·병원 등 압수수색, ‘흡캠’ 영상 약 4800개 분석, 피해 아동의 의무기록 확인 등 보완 수사를 통해 A씨가 아들을 무차별 폭행한 사실을 밝혀내고 아동학대 치사가 아닌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과 경위를 강조한 뒤 A씨에게 무기징역과 아동·청소년 기관 등에 대한 10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학대를 방치하고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아동학대방임 등)로 함께 구속기소된 남편 B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날 광주지법 순천지원 앞 도로 주변에는 해든이의 사망을 추모하는 근조 화환 170여개가 놓였다. 또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라’,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해든이 편히 쉬어’ 등 피켓·현수막이 길게 늘어섰고, 살해된 영아를 추모하는 리본을 착용하고 피해 아동을 기리는 시인 집회도 열렸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만취해 업무·경찰 폭행 40대

술값 시비 끝에 업소에서 난동을 부리고 점주와 충돌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40대 남성이 검거

26일 광주 북부경찰청 업무방해·폭행·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8시30분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술집에서 소란을 피우고, 이를 만류하는 업주 60대 여성 B씨를 폭행한 혐의.

B씨는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고.

조사 결과 A씨는 업주가 요구한 술값을 거부하는 등 실랑이를 벌이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A씨의 난동으로 업장 분위기가 크게 어수선해진 것으로 전해져, 심지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C경찰에게 주먹을 휘둘렀다고.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와 함께 A씨의 상습성 여부 등을 포함해 여죄를 조사할 방침.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광주 동구 친환경자원순환센터 개관 2년

## “안 버리고 재생”...자원순환 거점 자리매김

### 체험형 환경교육·수리수선 프로그램 등 만족 누적 4만6000명 방문...생활 속 탄소저감 확산

광주 동구 친환경자원순환센터가 체험형 환경교육과 자원순환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대표 친환경 거점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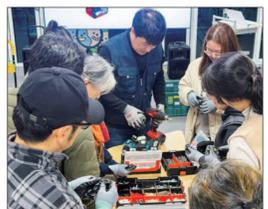
26일 동구에 따르면 산수동에 위치한 친환경자원순환센터는 자원순환을 주제로 조성된 광주 최초의 시민 참여형 공간이다.

2024년 3월 개관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누적 방문객은 4만6774명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24년 2만3797명, 2025년 2만2977명이 찾았으며, 월 평균 방문객은 약 2330명 수준이다.

특히 깨끗하게 분리한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동구라미는 포인트로 바꿔주는 센터의 대표 프로그램인 ‘동구라미 가게’에는 2년간 총 1만3647명이 참여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센터에 수거된 지난해 재활용품 수거량과 탄소 저감량은 각각 1만7385kg, 14.44tCO2eq로 조사됐다. 전체 배출 품목 중 투명페트병 1만172kg로 가장 많았고, 폴리에틸렌(PE) 2258kg, 알루미늄캔 949kg, 서적 736kg 순이었다.

환경교육 프로그램도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광주 동구 친환경자원순환센터가 3층 수리수선실에서 공구 사용법을 교육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 동구 친환경자원순환센터

‘동구라미 환경교실’은 지난해 195회 진행돼 2642명이 참여했다. ‘전자폐기물의 여행’, ‘우리동네 플라스틱 탐험대’, ‘센터 탐방’ 등 기획 프로그램은 재활용 분류와 기후위기를 체감 중심으로 전달하며 교육 효과를 높이고 있다.

특히 전자제품 생산과 소비, 자원순환의 흐름을 직접 체험하며 올바른 중소형 폐기물 배출 방법을 알리는 ‘전자폐기물의 여행’을 통해 중소형 폐기물 150kg이 수거되는 성과도 거뒀다.

수리수선실 역시 센터의 핵심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 ‘무든 칼 가는 날’, ‘기초 바느질’, ‘재봉틀 수선’, ‘목공 장바구니’ 등 생활 밀착형 프로그램이 총 121회 운영됐고, 1505명이 참여했다. 고장 난 우산과 선풍기 등을 현장에서 수리해주는 서비스도 방문객 유입을 이끌고 있다.

자원재사용 문화 확산을 위한 시도도 눈에 띈다.

‘동구라미 카페’는 주민과 공직자가 기부한 텀블러를 대여해 다용용기 사용을 장려하고 있으며, 이용자 9599명 중 6285명이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했다.

또 지역 카페 180곳과 함께 진행한

‘종이팩 모아 프로젝트’를 통해 7170kg(약 25만장)의 종이팩을 수거했다. 이는 30년생 소나무 1422그루를 심는 효과와 맞먹는 규모다.

센터는 지상 3층, 연면적 879.66㎡ 규모로 조성됐다. 1층에는 동구라미 가게와 카페, 스마트 재활용 공간이 들어서 있고, 2층에는 교육실과 주민 쉼터, 3층에는 수리수선실과 목공실, 야외작업장이 마련돼 있다.

이용자들의 만족도도 높다. 산수동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고장 난 선풍기를 수리해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새 제품을 사는 대신 환경을 지켰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동구 관계자는 “센터는 주민 참여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생활 실천 공간”이라며 “자원을 고쳐 쓰고 다시 사용하는 문화를 확산해 지속가능한 순환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